



HORATIUS BONAR

평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

불안한 영혼을 위한 복음의 위로 · 개정판

한국어 번역: 최용진

원문 출처: Monergism · God's Way of Peace

목차

1.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2. 사람 자신의 성품은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안식처
4. 의로운 은혜
5. 뿌려진 피
6. 대속자의 인격과 사역
7. 복음 진리의 말씀
8.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9. 바로 지금 믿으십시오
10. 믿을 능력이 없다는 문제
11. 무감각
12. 오직 예수님

1.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지음받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상태의 차이에 근거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그릇되게 말하실 아무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것들 속에서 악보다 선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좋다”, “매우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두둔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증언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더욱이 그를 사랑하는 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 친절하게 말씀하시지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죄 있는 자를 면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반역자,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끔 죄인이 아니라 항상 죄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그에게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상할 만한 선함이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마음과 삶이 모두 악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이므로 정죄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의로운 율법을 범한 자이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뭇잎 몇 개가 시들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와 가지가 부패한 것입니다. “육체” 또는 “옛 사람”, 즉 세상에 태어난 각 사람, 사람의 아들, 인류의 단편, 아담의 타락한 몸의 한 단위는 “부패했습니다.” 그는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죄를 가지고 갑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에 복종하는 “몸” 또는 죄 덩어리, “죽음의 몸”입니다.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 법이 완벽하고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최고의 인류, 즉 문명화되고 세련되고 교육받은 인류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아들들 중 가장 좋은 표본;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그가 “죄 아래” 있고, 그가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칠한 그림이 목재가 아니듯이, 단단한 바위 위의 푸른 이끼가 바위 그 자체가 아니듯이, 사람의 외적인 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의 그림은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교묘한 색상 배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마음은 온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시어 죽음과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여기십니다. 외적인 선은 내면의 악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인간에게 행한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나쁜 생각과 상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나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그가 이 무한히 사랑스럽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한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사랑해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스스로 좋은 말을 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괜찮고, 죄인이 아니며, 용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나 구세주 없이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의 입이 막혔”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외적 생활이 지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그의 사건을 고려하게 할지라도, 앞으로는 판결이 그에게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날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공로가 엄격하게 재판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땅의 심판자가 공의를 행하리니 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에게는 또 다른 더 나쁜 혐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그의 죄중의 죄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에 대한 첫 번째 비난입니다. 둘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한 저주를 동반하는 최고의 파괴적인 죄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죄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이다. 성경 전체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 정죄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비난받은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인간의 죄와 파멸에 대한 그분의 증언을 당연히 여기거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슬프게도 불행한 존재라고 증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망을 면한 자로서 진노하심 아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 범죄 중의 범죄, 곧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그의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정죄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니 우리는 이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2. 사람 자신의 성품은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평안할 근거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리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그토록 결정적이라면, 마음이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죄를 받을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것은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정죄할 만한 내용만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싸우거나 원망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분은 온 땅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심판에 있어서 옳으시고 주권적입니다. 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법은 냉혹합니다. 그것을 깨뜨린 사람을 (한 점이나 한 획이라도) 죽음에 합당하게 만들지 않고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영혼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확신은 죄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기 선에 대한 모든 좋은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한때 좋아 보이던 것들이 너무 나쁘게 나타나고, 나쁜 것들이 너무 나빠져서 모든 자립이 그 밑에서 떨어지고, 그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엇인가의 결과로, 구원받을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무력했습니다. 행동, 감정, 노력, 기도, 기부, 절제, 생활 등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괴로운 마음을 위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가 질병이나 불행에 불과하다면, 겉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증상이므로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질병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단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셨을 때; 그러면 이러한 선행 중 어느 것도 그 자신의 상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에게 완전하고 의로운 용서를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깨어나고 상처받은 양심을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미움과 죄인에 대한 그의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작가는 자신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연 상태와 죄는 지옥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세상과 그 허영은 끔찍하고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며, 성경의 표현은 중대했습니다. 내 눈에는 구주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절실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꿈 속에 있거나 농담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성격, 삶의 선행, 기도,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호소로 결정됩니다. 접근 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또는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근거에 근거합니다.

소유권, 보증, 추천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요소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전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떤

탐구자들이 불안이 시작될 때 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할 것이며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한 후 견딜 수 있는 진지함으로 다가가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질과 양을 기초로 할 뿐 아니라 죄인 앞에 놓인 실제 질문인 “기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죄인의 불안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는 “너희는 나에게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부적합을 벗어나 건강에 이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수 있도록 올바른 정신 상태와 성품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증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정신!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 죄를 그치고 남은 생애 동안 선한 일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성격은 당신이 접근하는 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뢰의 기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금액 없음 기도하고, 일하고, 느끼는 것은 의로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고, 죄책감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무한히 거룩하신 분의 면전에 접근하는 길을 지키는 화염검을 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실 권리는 당신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고 독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죄받은 어떤 것도 당신에게 그분께로 가거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영장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입장의 자유는 그가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출신이 아닌

그가 비난한 어떤 것. 나는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깨어난 영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의 양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예배를 세웠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떤 치료법으로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고쳤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도문을 쓰고 암기하여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우는 작업을 마치고 모임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졌습니다. 평안가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는 그의 삶의 표어였습니다. 접근과 수용의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며(딤후 3:5), 두 번째 곳에서는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집시 남자. iv.4]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여자. ii.16] 죄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은 그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평안의 근거나 화해의 요소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자신. 평안을 위한 그의 유일한 자격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선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도록 권유하고 용기를 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찾도록 명령하는 것은 그의 부족함에 대한 양심입니다. 우리를 의사로 적합하게 하고 그의 기술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입니다. 용서가 현재적이고 확실하며 의로운 일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죄책감도 진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최선의 감정, 최선의 기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희생,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아니; 죄인은 이것을 최대한 쌓아 놓고도 용서가 전과 마찬가지로 멀고 불확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진지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도록 설득할 수 없으며, 한 시간이라도 그의 양심을 진정으로 조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까?

모든 거짓 종교에서 숭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자신의 성격이나 생활 또는 종교적 의무에 있는 어떤 것에 두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18장 11절]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또는 과거에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행하고 느끼고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할 정도의 행동과 감정을 축적할 때까지 자유로운 복음의 평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처럼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을 때에도 이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고, 그들 자신의 성품과 사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하여는 “여호와께서 네가 의뢰하는 것을 버리셨으니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Jer. ii.37) 그들은 현재의 신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의 안식처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매우 점진적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종교적 의식에 약간의 근면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의무, 기도, 경험, 헌신의 양을 늘려 그들이 소위 겸손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생활 방식을 통해 그들은 이 종교적 과정을 시작하기 전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자격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도에서

안식처는 자아, 즉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자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아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일하고 경건한 자아에 의지하는 것이 옳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단순한 신자의 행복한 확신을 그들은 주제넘음 또는 광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비참한 불확실성을 겸손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자신의 성격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개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에 평안을 줄 수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어떤 영장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갈라진 틈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함 외에는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으시며, 죄인은 불완전함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의무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예배하는 사람의 인격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개인적인 수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죄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기도하여 정죄받은 죄인보다 더 나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기도를 독선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받아들여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받아들여짐을 사는 것, 즉 우리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 지불하는 대가이며, 양심이 더 이상 그 공포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설득하는 뇌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개선은 깨어난 양심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우정을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좋은 감정, 좋은 계획, 좋은 기도, 좋은 경험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래나 사해의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격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해도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분이 완전하셨다면, 그분 자신의 완전함을 생각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해? 그에게 좋은 것이 많으나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못하니 이는 화평을 말하는 선한 것이 화평을 말하는 악을 대신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에 대해

선을 많이 생각하고 악을 적게 생각함으로써 생겨난 평안은 얼마나 가련하고 스스로 만든 평안입니까? 게다가 이것은 악을 완화하고 과장하려는 유혹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것,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은 항상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추정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자기 눈을 멀게 하는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자유로이서 즉시 용서받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간사함 없이”(시편 32.2)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는 그다지 크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행으로 내 죄를 보상받았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매우 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합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려는 유혹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바위가 아니라 모래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품의 좋은 점을 요약하고, 우리의 좋은 감정과 행동, 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회개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나 확신은 교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초 독선이거나 적어도 자기 승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좋은 감정을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면에서는

이것이 자랑을 없애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아니, 그것은 독선의 목적을 위해 성령을 사용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의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건강의 회복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변화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러진 팔다리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즉시 안도감을 얻습니다. "치유된 지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치유로 인한 육체적인 경우와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성품과 성품의 변화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지식이 가져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지식이 가져오는 평안은 동반되고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평안은 서로 아주 다릅니다. 영적인 건강의 회복에 수반되는 평안도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는 영혼의 새로운 건강이며, 이 건강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인식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안식처 우리는 죄인의 평안이 자기 자신에게서나,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생각하거나, 옛 자아를 고치려는 의식에서 나올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는 그것을 어떻게 얻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신이 찾고 있는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성품의 계시에서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의 성령은 크시며

그 진리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평안하라”로 해석합니다. [Job xxii.21]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은 평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지 않고,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없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평안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믿고 떠는” 마귀의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19]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상하게도 이것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바로 그 불안한 상태입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눈앞에 십자가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닌 증오로 자신을 나타내셨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둠과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복음이 선언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고, 성경이 공포로 가득차게 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엄숙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그들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사람”과 “엄격한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스스로 어떤 진지한 수행이나 영적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은혜가 자신들의 상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것처럼,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은혜를 구현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경건치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합당하지 아니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평강이 우리를 더욱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 마음이 완고하다, 감정이 변하기 쉽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할지라도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해 봅시다. - 거룩하시지만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은 거룩함을 방해하지 않으며, 거룩함은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시지만 무한히 은혜로우십니다. 주권이 은혜를 바로잡지 못하며, 은혜가 주권을 곧게 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내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나 악인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일부는 들어오도록 강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를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된 그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불안에 대한 참된 치료법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울함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합니다. 나는 혈과 육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너희에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을 아노라 아들. 그러나 나는 이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그가 원치 않는데 당신은 원한다는 끔찍한 생각으로 당신을 격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 죄인을 방해하고 성령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꺼이 죄인과 원하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그러한 갈등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요, 복음은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실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구속이라는 위대한 진리는 영혼에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없는 거대한 장벽을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장벽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 영혼은 육지에 갇히게 됩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가장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일은 아버지의 말씀과 일입니다. 구유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함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존 14세. 8,9]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은혜와 은혜로운 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해석된 그분의 성품을 알기 위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는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지식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이 신성한 교사, 이 해석자, 즉 이 “천 명 중 한 분”에게 빛지고

있습니다. [욥 xxxiii. 23] 그러나 죄인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나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낙심한 사람에게 “너희의 불신이 너희를 가두고 있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진리일 뿐이며,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종종 잘못을 범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하며,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복음이 그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할 어떤 악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불신앙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나쁜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한 구도자가 안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나쁜 견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사건을 전적으로 그의 손에 맡기기를 꺼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죄인이 자신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자신의 성품에 대한 평가를 낮추어,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타월함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에 대해 좋은 견해를 바꾸신 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악한 견해도 바꾸시어,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부인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은 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동료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이름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 즉 자기 자신에게 온전한 구주가 필요한 죄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피와 의가 필요한 죄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선함이나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해 그렇게 나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 헌신적인 의무 준수, 타인에 대한 우월성. 자신에 대한 사람의 좋은 평판을 파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좋은 평가를 잃은 후에도 마음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후에도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의무에 대해 좋은 견해를 굳건히 유지하며, 이를 통해 악한 행위와

나쁜 마음. 아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시고 그를 은혜로 받아들이시도록 행동하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은 어느 정도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안다면, 그는 알파인 절벽을 오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그러한 노력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의 전능하심이 아니고 무엇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질문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나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과 같은 자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운 손에 맡기고 그 영혼이 영원히 지켜지도록 맡길 때 매우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좋은 견해의 정도나 성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의심을 물리쳐야 하며 가장 가증스러운 측면에서 불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참한 왜곡과 그분의 은혜로운 이름에 대한 중상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은 거짓을 믿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을 십자가에서 말살하고 다른 이름 곧 알려지지 않은 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니 거기에는 죄인에게 평안이 없고 지친 자에게 안식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 위에 기록된 그의 복된 이름을 바르게 읽으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순한 해석을 받아들이십시오. 평안의 좋은 소식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리신 것만으로는 당신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당신의 견해. 그것은 성서에 밝혀진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공통된 연결입니다.

평안. 그가 마음속에 부어 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우리가 참 여호와를 알게 하여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악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는 것은 오직 선한 것뿐이다. 그분은 우리가 느낌이나 믿음으로 위로를 받도록 느끼거나 믿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개된 위대하신 여호와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는” 그분의 성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구주”입니다. xiv. 21)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탐구하는 영이여, 당신의 눈을 십자가로 돌려서 이 두 가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십자가형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 자신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성격을 읽고, 그것을 평안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신이다 그 자신; 확신된 사랑.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도록 당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가장 충만하고 아낌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 나아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고통과 죽음이 은혜를 의미하지 않거나 그것이 의미하는 은혜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오해할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느니라.”〔요한일서 3.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속죄하셨느니라.”〔요한1서 4장 10절〕

4. 의로운 은혜

의로운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벧 1마리. 10절〕 우리는 죄인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주의 은혜를 맛보아” 있음을 보았습니다.〔벧 1마리. ii.3〕 그러나 이 은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자. 그것은 심판관이시며 아버지이신 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용서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희생을 모두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막연한 용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용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분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죄를 완전히 인정하신 데서 비롯되는지 여부. 올바른 종류의 용서는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나옵니다. 선한 성품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운 성품에서 난 것이니라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비롯됩니다. 절반만 진지한 탐구자는 이것을 간과한다. 그의 감정은 감동되었으나 그의 양심은 각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단순한 동정심에 대한 매우 모호한 생각에 만족합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죄가 인간의 불행으로 보일 뿐이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는 그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 그는 용서가 어떻게 오는지, 자신이 받았다고 공언하는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묻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돌밭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곧 그가 얻었을지도 모르는 기쁨의 정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 아니면 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 감상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찢린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구하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관련이 있다고

그것도 은혜로. 그러므로 그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하는 용서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점에 만족해야 하며, 그 은혜가 의로운 은혜임을 보아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불의에 대해 더욱 살아 있을수록,

더욱이 그는 우리가 그에게 알리는 은혜의 의를 확인할 필요를 더 느낀다.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의로운 은혜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양심은 그것이 오는 길이 의로운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되거나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양심에 있어서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ix. 9-14]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불안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의 죄가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마음을 달래준다고 해서 항상 양심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보는 것은 전자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의 의를 보는 것만이 후자를 이룰 것이다. 나중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조금 치유되고,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말해진다. [Jer. vi. 14] 상처의 치유는 평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말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분의 십자가는 양심이 제기한 질문, 즉 “이것이 의로운 은혜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속죄 사역입니다. [이다. xiv. 21]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의로우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의로우시다. 그것은 구원을 의로운 행위로 보여줍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로서 용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리고 그가 용서하시는 바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정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느니라.” “그는 그를 위해 자신을 바쳤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가 자기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표현들은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말함이라 사랑은 각 사람 안에 있으니 곧 하나님의 깊고 참되고 참된 사랑이요 또한 공의와 거룩함과 확고하고 냉혹하게 율법을 지키심이니라 이 말은 율법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나니 율법은 우주의 기초와 기둥과 종석이니라 그러나 율법과의 관계는 또한 사랑과의 관계도니라 그러므로 보증인의 사랑을 끌어낸 것은 바로 이 필연성이었고, 또한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신 분의 사랑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그의

죽음을 사랑의 증거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정의가 필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취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으니 기록된 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였음이니라. [에스겔. xviii.4] 사랑은 그를 요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죄책을 취소하고 그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취소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아니었다면 은혜와 죄책은 서로 마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의로움은 화해를 금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의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예외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았을 것이고, 죄인이 오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비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은혜는 의이고 의는 은혜입니다. 이는 불의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로운 사랑을 보여 죄인의 양심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 화해는 이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알려 줍니다. 그것은 의로운 화해이며 모든 시험을 견디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양심의 평안은 시련을 겪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임종을 겪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죄인 중의 괴수는 “정죄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상한 양심에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가?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이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의로운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죄인에게도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영혼에게 즉시 말해 줍니다. 그 사람은 오직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에 빚지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심하시는 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인간의 가치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의 은총과 선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종 오해되는 “은혜”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고 값없는 사랑은 독생자가 거쳐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그 기원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킨 것은 인간의 선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었다. 그것은 같은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끌어당긴 빛이요, 죽음이 끌어당긴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찾아온다.

과분한. 그것을 창조하거나 불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이미 신성하고 다양한 충만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의로운 은혜는 존재하며,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불신앙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위에 살아갑니다. 그래,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와 더불어 의로운 용서와 의로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의 의로운 상속자가 되느니라.

5. 뿌려진 피

뿌리는 피 그러나 한 질문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피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평안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가? 피가 우리가 말한 평안과 은혜와 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에 강조점을 두시는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의 평안의 밑바닥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벨 시대부터 내려오는 옛날의 희생은 피의 의미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죄 사함을 위하여 흘려진 것”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피가 없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ix.7)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에 썼다고 전해지는 비문.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족장 시대에는 단 하나의 큰 제사, 곧 번제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배 하에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는 원래의 번제의 본질이 피와 불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대속의 상징인 피와 대속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불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히 매일의 번제에 있어서는 아침과 저녁의 어린양이었는데, 이는 옛 족장들의 번제의 진정한 연속이자 대표였습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의 매일의 어린 양은 알갱이였다

구약의 모든 희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시 제사로 돌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 피였으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 피였습니다. 이

모든 희생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영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흘림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지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기록되었고, 또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물의 피 흘림은 죄를 없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행해지는 방식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그것은 속죄라기보다는 “죄를 기억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죄가 용서되기 전에 생명은 생명으로 드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의 계속적인 반복은 모리아의 제단에 뿌려진 것보다 더 풍성한 피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피흘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한 번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모든 죽음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한 생애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사람이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의 삶이나 두 번의 죽음, 두 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으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니라.” “그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피 뿌림”은 죽음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죽음을 가함으로써 이 사람이나 사물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율법의 형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값은 후에 그들은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클렌징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과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희생의 적용을 의미하는 수치. 피는 선지자가 말한 “질질과 많은 비누”처럼 우리를 대속물의 죽음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며, 불순종의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이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한 일도 행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릇되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선고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죄가 온통 뒤덮일 때, 대제사장께서는 그 피를 가져오십니다.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율법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에게 넘겨집니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진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주홍색 같던 죄가 눈 같이 되느니라. 진홍색 같았던 것이 양털처럼 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죄인이 피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형벌을 지불하고 “그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법에 의해 간주되고 하나님에 의해 대우를 받습니다.〔회전. i.5〕 이것은 죽으신 분을 통한 생명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피 뿌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의 염려를 제거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길이다.

괴로운 영혼을 찾아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의의 계시입니다. 피 흘림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부어 주시는 사랑의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법과 사랑의 화해입니다. 죄의 정죄와 죄인의 석방.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복음이 전하는 바 피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알느니라” 양심이 만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은혜요 그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임을 느껴 거기에 안식하니 성육신으로가 아니요 피 흘림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대속자가 아니시라면 그는 죄인에게 아무 것도 아니시니 이 점에 대하여 속지 말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지어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라. 그러나 내가 던진다면 그리스도가 그 이상 아니겠는가? 나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자, 나는 구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한 걸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캬! 그분은 약간의 손실, 약간의 희생, 약간의 수고, 약간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신 이에게”라는 행복한 노래를 일깨우는 구원입니다.

지금 세상 종교의 경향은 피를 거부하고 희생이 필요 없는 복음, 즉 “죽은 어린 양”을 영광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갑니다. 가인은 피를 거절하고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조롱자들이 모독적으로 부르는 “혼란의 종교”에서 우리는 최초의 살인자를 봅니다. 어린양의 피로 자기 제단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의 피로 땅을 더럽히느니라. 이교의 제단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숭배자들은 그 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과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의 복수를 달래기 위해 그것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노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제단은 오직 분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피는 의와 은혜를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단을 보십시오.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는 곳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게 이르지 못하던 사랑을 이제 내게 부어 주소서.” 영혼을 탐구하라!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인의 실수를 조심하고,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는 이방인의 실수를 조심하십시오. 피.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이에 관한 그의 증언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 양심이 평안해지고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므로 그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인의 형벌을 지불하는 것이고, 빛을 탕감하는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결박이나 친필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대가인 것처럼 부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하신 전체 금액에 대한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지불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형벌을 지불하고 죽은 우리 자신인 것처럼 대우받은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쫓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자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6. 대속자의 인격과 사역

대체 생명의 인격과 사역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리하여 은혜는 의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대속물로 살다가 죽으신 그분에 관해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업적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필요를 위해 마련하신 공급으로 마음과 양심에 더욱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에 관하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그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구주”; “그리스도”, 기름부음받은 자,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니라.” 그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곧 천국 복음이요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 그 주위에 모인 무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느니라.” “그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돌아다녔다

사람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구세주로 드나들었고, 그분의 전 생애에 걸쳐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로 봅니다. 그분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최대한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에 관해 이렇게 기록된 이 모든 것에는 죄인을 위한 좋은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어야 할 사람은 단순한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셨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진노의 생각이 아니라 평안과 은혜의 생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선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큰 원수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편을 택하시고 그와 사탄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지 않을 것이며, 그 거주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취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도, 그의 탄생도, 그의 생애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실하지만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처녀의 본질; 우리 뼈 중의 뼈가 되고, 살 중의 살이 됩니다. 참으로 여자의 씨임이니라. 그가 평생 동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의 시작일 뿐입니다. 알파는 있지만 오메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휘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졌고 또한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휘장은 육체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온전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숭배자는 실제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있어야만 했다. 휘장은 죄인에게 “신격은 안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즉 “사람이 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좋은 소식을 한두 가지 특별한 점으로 요약하신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 수가 적고 평범합니다. 어린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천상의 보석을 담은 관입니다. 그것은 목마른 영혼을 위한 생수를 담은 잔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담은 금광주리니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니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책은 짧지만 축복된 페이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기록은 너무 단순해서 “바보”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이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옥의 모든 책략도 그 확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자 사도적 설교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원시 설교의 머리를 형성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나 고린도와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들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너희에게 전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느니라.” 고린도에서의 그분의 설교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것을 기억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는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적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그 진리와 확실한 증거를 더하여 듣는 자마다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전파되고 큰 구원이 나타났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부담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기도하며 그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 즉, 복음이 아닌 율법입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죽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을 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을

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의 행하심은 너무나 완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관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중 일부를 함께 모읍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사실에 대한 신적인 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것들에 부여하신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친히 주변에 있는 의심자들의 불신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을 상기시켰다.

기록된 말씀에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죽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때가 이르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이시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쳤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느니라.”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자에게니라” “나는 산 자니 전에 죽었었으니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 있느니라”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신의 진리니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짓말하실 수 없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도 그것은 1,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설교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불의한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빛을 갚는 것, 형벌을 건디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죽음! 그는 묻혔다. 그게 그가 죽었다는 증거야

우리처럼 무덤이 필요한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분 못지않게 그 값으로도 만족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에게 이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땅과 하늘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그토록 만족케 한 것 외에 그가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소용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씀만큼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상적인 거리감을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해 따뜻한 감정과 좋은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죄인에게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믿음의 직무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까이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의가 가까이 온 것 같이 기뻐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7.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용을 받으며 행복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죄인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묻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덮개를 만들 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무화과 잎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눈으로도 꿰뚫어 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의 무화과 잎이 무익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낙원의 무성한 잎사귀로 달려갑니다. 주님은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더 나은 덮개와 더 나은 숨을 곳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원수인 옛 뱀에 대하여 죄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자의 씨, 즉 참된 “숨는 곳”인 “남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의 수풀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은혜 안에서 그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짧았지만 그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의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계시된 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신성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발표 중 몇 가지를 모았습니다. 불안한 영혼에게 그것들을 신성한 것으로 연구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그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복음 선포의 분야를 횡단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훌륭하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가장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자유로운 사랑”, “자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분의 자비는 대단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당신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여 주는 선택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칠 만큼 크시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크시도다.”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그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자기 기업에 남아 있는 자의 죄악을 관대하시며 인자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금훔이 풍성한 하나님이며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사람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의 금훔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그다지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구현하는 복된 소식에 주의를 기울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가장 어려움을 겪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영혼에 평안을 전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위의 둥글고 푸른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또는 신선함을 쏟아내는 우물과 같으니

사막의 바위와 모래 가운데.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도 “우리는 이 모든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숙한 단어를 읽고 다시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주로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풍성함에 관한 선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과 평안을 베푸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자로서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향한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읽을 때 마음에 평안과 찾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읽어 보십시오. 두 번째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백번, 천번을 반복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다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느니라.” 그의 말은 생생한 신탁이다. 그의 말씀은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록된 것을 연구하라는 그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침내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당신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십시오. 당신은 때때로 황혼 무렵 하늘을 올려다보며 늘 보던 자리에서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던 별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과 그 빛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거나 다른 물체로 시선을 돌리는 대신,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곳을 점점 더 열심히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동안 희미하게 별이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끈질긴 수색은 오랫동안 추구해 온 보석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말하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것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가격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검색하고 연구하세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담긴 영광을 여러분에게 가장 기꺼이 드러내십니다. 죄인의 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직무이자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는 기꺼이 당신 뒤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를 불신함으로 그를 슬프게 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영혼에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당신 안에 있는 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께 대한 불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아들에 대한 불신; 성령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며 성령의 일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가르칠 때 자기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관심하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이해력의 눈을 밝히려는 그분의 의지를 의심하십시오. 당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굳게 확신하는 동안, 당신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의 사랑과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려는 그분의 의지를 분리하여 그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너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너를 위해 그것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는 마치 당신에게 하늘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당신의 행동과 기도를 설득하거나 뇌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나

자신의 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가르치려면 그를 믿으십시오. 맛보고 그가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즉시 그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랑과 힘. 내가 회심할 때까지는 그를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를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개종은 그를 신뢰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죄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죄를 버리라는 영장을 요구할 정도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둑에게 말하기를 나는 도둑질을 그만둘 영장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그가 회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을 포기할 영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회심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즉시 전환할 자격이 없다면, 불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불신이 당신의 가장 큰 죄 중 하나라면, 내가 회심할 때까지 성령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그를 믿을 때까지는 그를 믿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그분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적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기꺼이 보여 줄 만큼 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분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은혜로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그의 말과

같이 대하는 방식은 그가 그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기꺼이 그의 영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당신은 그가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가 축복하기보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이 빛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당신의 생각은 그를 즉시 믿지 않는다는 단순한 변명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라'와 '기다려라', '지금 오되 지금은 오지 말라'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친절한 부자가 불쌍한 불구자에게 즉시 와서 부양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그를 운반하기 위해 마차를 보냅니다. 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면 너희는 절름발이가 되어

그리고 전달할 수단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마차를 보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초대와 마차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말하듯이 성령이 말씀 안에 있거나 메시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별개이지만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수는 사람을 보내신 분이

다른 사람을 보낼 의향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간격을 창조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기다림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명령받은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결심! 그러므로 당신은 무능력을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비난을 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즉시 행하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의 복음을 즉시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가서 그분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탄원으로 이 의무를 회피합니다. 이런 구실로 당신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감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을 달래고, 그래서 당신이 믿기를 원하고 이 위대한 사업에서 당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처럼 불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믿기보다는 믿기만 하려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기를 원하고 실제로 도둑질을 포기할 때까지 도둑질을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도둑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의무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옳고 받아들일 만한 일인지 여부입니다. 믿지 않는 기도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응답 또는 축복. 전자의 경우에는 당신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과 같으니라. 믿기 전에 기도하는 의무를 지키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의지가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당신이 그를 설득하여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당신에게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믿도록 강요하실 때까지 당신은 불신앙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받아들이 만한 기도의 능력을 주시도록 유도하기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믿기 위해 기도하는 의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죄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포함하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가고 있는 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큰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점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곧 그의 아들을 거저 주시는 이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너희에게 부르짖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

그의 이름; 만일 당신이 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신 사랑의 선물을 알았다면 당신은 그분께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당신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도록 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나 감정, 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틀의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큰 일의 좋은 소식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성된 일을 아는 것은 즉각적인 평안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에서 길게 인용한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아닌 신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 검색하고, 연구하고, 파헤쳐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내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네게 숨기라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훈계를 굳게 지키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려는 듯이 단순한 자들,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단순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필요에 대한 예전의 어려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려는 듯, 위의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덧붙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동반하려는 의지를 당신이 의심하도록 한 순간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 말씀을 존중하라 하나님;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에게 해석과 빛을 맡기고 그를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죽은 편지라고 부르며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죽음의 형상을 사용하려면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지독한 생명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거나 정죄하듯이 성령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그것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나니 이는

성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화평과 빛과 위로와 생명과 구원과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것으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과 전능하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진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8.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구주께 붙들어 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성과 무력함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신성한 대속자의 사랑과 능력을 명백히 선포하면서 신성한 성령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죄로 죽은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끈에 관해 기록된 내용을 성경에서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용서와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죄인과 죄를 담당하는 자를 잇는 연결고리,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거나 합당하게 되기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활동이나 활동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의 유익을 주시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성한 기록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모든 영적 탁월함과 선행의 씨앗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룩함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이며, 단순히

죄를 위한 큰 희생의 완전성과 그 완전성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의 진실성;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증거한 것이 믿어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은 돈이나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에게 영예를 돌리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 죽음에 죄인을 위하여 포함된 생명은 돈 없이 값 없이 얻게 되느니라. 그러한 경우에 탐구자가 발견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가르침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신성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믿음에 관하여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의를 나타내사 그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를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죄인과 큰 구원 사이의 연관성을 가르쳐 주는 많은 성구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 아들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에 참여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증언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어떤 공로나 구원의 미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대상, 즉 믿음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 진리가 영혼의 평안과 위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필요성과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믿음의 행위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독선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잘 수행된 행위를 생각하면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그의 확신은 특정 계절에 이것들을 요약하고 그들 중 많은 것의 우수한 품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기대했던 곳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받는 증언은 사람과 그의 선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경우 증언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은 마치 죄인에게 “너희 사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손에 맡기고 네 영혼을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죄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나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딤후 2장 4절, 벧후 2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단순함을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기억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믿음, 신뢰, 아는 것, 기억하는 것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알고, 기억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기억되는. 또한 구원은 믿고 아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니라 또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승인하시도록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성분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확인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공로로 만들거나 적어도 자격을 갖춘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업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위대한 이해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완전하거나 적어도 죄인인 죄인에게 부적합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안식으로 삼고 그 견고함과 탁월함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양심을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들 모두가 비참한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눈을 사용하여 빛을 얻습니다. 그것들의 사용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내가 믿는 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물을 추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인한 평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거나 우리 자신의 신뢰를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띠입니다. 영혼이 사물이나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알려지고 믿어지는 진리의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진리나 증언을 붙잡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실에 대한 믿음;” “진실을 인정합니다.” “진리의 길”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진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 정신

진리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이며,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듣는 자니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말도 이에 못지않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아시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믿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에 관한 이 진리를 육에 속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을 뿐더러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오를 제거하고, 죄인이 진리나 참된 분을 기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시는 데에는 후진함이 없습니다. - 그리고 탐구와 불안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육체 너머의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는 영혼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게 만드는 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매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영혼의 큰 훈련이나 노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신뢰하도록 요청받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정신적 과정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도자는 믿음 자체에 장점이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믿음을 신비화하거나 확대하지 마십시오.

질감이나 품질이 그를 의롭다 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의 사역을 불필요하게 만들 목적으로 단순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것을 더 단순하게 볼수록 그는 고의적으로 믿기를 거부한 자신의 죄와 진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마음의 두려운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한 조력자가 필요함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어려움은 순수한 독선에 그 진정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믿기 위한 노력, 신뢰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독선의 표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영적 훈련이 선을 위한 상징이 아니며, 종종 영적인 자부심의 단순한 표현, 즉 독선의 필사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이나 노력을 기존 믿음의 증거로 지적하여 불안한 영혼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무지나 불신의 증거입니다. 죄인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속죄에 대해 눈이 멀었다는 단순한 증거일 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믿음이라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데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그의 구원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루어진 일 위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훈련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 일은 1800년 전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9. 바로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열심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삼고 실제로 그것을 즉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열심이 충분히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도 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열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열심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양심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진심.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진지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아들에 관한 기록에 대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그에게 간절함을 줄 수 있고, 그에게 간절함을 줌으로써 그를 설득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음과 간절함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열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힘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의 진지한 투쟁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바라면서 진지하게 일하고 분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진지함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은밀히 느끼면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믿지 않는 열심과 믿지 않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지 못하며, 사도가 탐구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한 예비 과정을 제시했다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사도들이 청중들이 즉각적인 믿음과 회개를 하도록 가두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으라 명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팔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명하심과 같으니라. 그 사람은 완전히 무기력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예비적인 일이나 준비 노력, 노력, 자금 사용에 관해 어떤 지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거대한 간격을 메우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에 대한 끔찍한 질문을 회피하는 인간의 방식; 남자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비성경적인 장치; 하나님을 도와 인간을 구원하려는 인간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의 진지한 노력을 공홀히 여겨 나머지 필요한 모든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무서운 구덩이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사다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얻기 위한 어떤 지시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믿으라고 명하셨으나 그들에게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유도될 수 있는 준비 단계 또는 과정.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불신앙에 빠뜨리심으로써 그들을 믿음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능력의 위대함과 죄의식을 모두 느끼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 그들을 모든 거짓말의 피난처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며, 하나님 자신의 즉각적인 도움을 너무나 많이 거부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독선의 가장 큰 표현은 믿기 위한 투쟁입니다.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기 위한 투쟁은 단지 일이 아닌 것을 일로 만들려는 죄인의 시도, 일로부터 쉬는 일을 일로 만들려는 죄인의 시도일 뿐입니다. 죄인들은 이전에 가졌던 확신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확신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이러한 사전 노력을 더욱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면서, 나는 그것이 모두 독선의 슬픈 징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충분히 이루지 않으셨고, 당신이 그분께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논쟁과 끈질김을 가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꺼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는 이러한 투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는 겸손한 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거나 당신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든 붙잡으려는 자랑스러운 시도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와 함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보다 더 기꺼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독선은 이 복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독선을 조장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해보세요. 그러나 나는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정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무력함과 죄책감. 이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도구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당신의 불완전한 견해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자신의 약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도 너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이 예비적인 것으로 대체하여 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의무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입니다. 그 수행은 아마도 당신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당신의 양심을 잠들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달래거나 더 안전하거나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살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지 않는 한, 당신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실제로는 거짓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가장 큰 죄로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에 가두십니다. 이제 이 죄를 경감시키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이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면 믿기 위해 이 모든 열렬하고 수고한 노력을 함으로써 이 끔찍한 죄를 줄이고 믿지 않는 상태를 덜 죄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앙의 확신으로 당신을 믿음에 가두는 신성한 손을 당신에게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폴러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 만한 복음"보다 이 내용이 더 잘 언급된 곳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문장을 제시합니다: - "목사들의 의무는 육신적인 청중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포함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타협적인 방법에 빠져서 초기 설교자들의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우리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가난하고 무력하고 타락한 피조물로 간주하여 그리스도인 봉사의 이 부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들의 능력 밖의 일들을 고려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 같으며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단정하게 행동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회중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길에 누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종교인가? 선지자나 사도들이 단지 지배적인 혐오감의 결과일 뿐인 그런 종류의 무능력을 변명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들은 행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권고에서 어디로 내려갔으며,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말씀에 따를 마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성격의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에, 안전하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의무로 허용되었으나 즉각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죄인은 그것들을 따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에게 권면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한 마음의 혐오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아니면 성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것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회개와 믿음만큼이나 어렵고 육신적인 마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영적인 축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양심을 괴롭게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은 불신앙에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불신을 계속하는 것은 최악의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이 그것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당신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술고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술고래의 변명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그의 사건의 가장 나쁜 특징이며 그런 탄원을 한 것에 대해 그 자신이 완전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는 당신이 술취한 습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서 이러한 습관을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술 취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술 취함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불신을 이렇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말할 수 없는 불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죄인이나의 믿음 없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가장 무서운 정죄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맹세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결코 불신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그 뿌리는 마음의 절박한 사악함입니다. 심지어 믿지도 않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악한가! 영혼의 이러한 타락과 하늘에 계신 살리시는 이의 필요성은 우리의 불신을 완화시킬 수 없고, 죄의 참된 죄를 덜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의 죄과를 줄이면 우리가 더욱 사악하여질수록

우리는 유죄여야 합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죄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지독한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한 순간의 불신에도 포함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며, 믿지 않는 영혼의 단 하나의 행동이며! 하물며 20년이나 60년 동안 계속해서 불신을 유지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한 번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데 하물며 습관과 명예로 도둑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것이 충분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술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이러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불신자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불신앙의 행로이며, 따라서 그가 예배를 드린다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순간은 새로운 불신의 행위입니다. 최악의 죄에 대한 새로운 위임; 죄 중의 죄; 이에 비하면 도둑질과 술 취함, 살인은 비록 끔찍할지라도 사소한 일이 됩니다. 오, 불안한 영혼이여, 이 죄악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도록 하십시오! 오! 하루나 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떨리게 됩니다!

10. 믿을 능력이 없다는 문제

믿을 힘의 부족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점에 대해 의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신의 지식이 올바른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어떤 불만에 대해 확실한 약을 처방하고 재판에서 내가 복용한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가 처방한 약 대신에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안다고 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으세요? 당신은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지만 아마도 그것을 즐거운 소리로 만든 한 가지를 놓쳤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죄인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 복음 전체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십자가가 구원을 매우 가까이 가져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신과 실제 접촉할 만큼 절대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가깝지는 않지만 자신의 기도나 노력, 감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약간의 공간, 즉 손 한 뼛이나 머리털만큼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부족합니다! 아, 거기 있어요! 당신이 끝내려고 하거나 당신의 기도로 그분을 설득하여 당신을 위해

끝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업 중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의 부족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아주 작은 거리입니다!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무감각함의 의식은 그를 더욱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삼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것인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것인가? 신체의 약함을 불신의 원인으로 만들 것인가? 부모의 사랑? 그 약점이 부모에게 철저히 알려졌고, 바로 그것이 더 많은 사랑과 기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아이는 보살핌과 부드러움이 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련하고 무력한 중풍병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하고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높이 평가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당신이 옳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다른 것;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혼동하고 있다는 것

모든 치유력을 무력화시킬 올바른 것을 가진 것.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위대한 사실에 담겨 있는 하늘 진리의 가장 단순한 요소로 돌아가십시오. 사실이 너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사실; 초기 신자들은 몇 주, 몇 달의 지체 없이 그 사실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하가 제기한 불만 사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용서받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작업이 모두 간접적이고 단지 당신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교사의 작업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당신의 어려움을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죄인 안에 있는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다. 이 내적 구원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은 후에, 그리고 당신이 믿은 결과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당신의 믿음을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교리는 낙담이 되기는커녕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리는 의심할 바 없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는 많은 도움 없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성령을 완전히 제쳐두고 성령의 도움 없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직접적이고 전능하신 도움 없이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에게는 희망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무능력이 마치 제공되지 않은 어려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발견이 당신을 몹시 실망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영이 없이도 자신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크게 안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위안이 된다면, 당신은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손에 권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의지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당신의 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복된 진리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 능력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필요한 힘이 무한히 은혜롭게 손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훨씬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당신의 최고의 희망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빼앗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해합니까? 이것이 마치 괴로운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그 어두운 당혹감을 풀어주는 것인양! 당신에게 전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당신은 당신의 타락과 무능력의 총합을 줄임으로써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과 회개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게 전적으로 빛을 져야 하는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의 무거운 심령에 위안이 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의 힘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인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가장 작은 종교 행위라도 할 수 있느냐?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질병이 어느 정도인지, 악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좋은 소식, 즉 죄책감이든 무기력함이든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내게는 여호와 안에 의와 능력이 있느니라”라는 축복된 선언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힘과 의로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자를 인정하면서 후자를 부인합니다. 너도 잊어버렸지,

사도는 주님의 능력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약했을 때 자신이 강했다는 느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참된 복음을 자유로이 이해한다면, 당신에게 영 없이도 지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남아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선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므로 임마누엘의 피와 의에 대해 전적으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당신 영혼의 큰 적임을 느낄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선함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문자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완전한 무기력에 대한 인식은 단지 당신이 위대한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죄인이고, 당신의 무능력이 모두 예견되고 준비되었으며, 당신이 전능하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게 될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능력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막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특히 당신 자신과 사탄의 만족을 위해 “믿음”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위대한 행위나 행사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남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축복받은 절망 속에서 일을 멈추고 -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어도 그 일의 필요하고 즉각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선의 밧줄을 굳게 붙잡는 데 상상 속의 작은 힘을 소비했습니다.

전혀 힘이 없어져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해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서만 힘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당신과 아직 전혀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그는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남아 있고 그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평안의 원수요,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믿음은 행위이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합니다. 그것들에 굴복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안에서 노력하는 성령을 괴롭히고 저항하는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속한 힘을 타락한 사람을 위해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충만이 거하도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죄인을 위해 마련하신 신성한 마련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옛 작가의 다음 문장은 숙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자기에 대한 모든 자랑을 버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부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기록의 진리에 대한 불신입니까? 이것을 그는 감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선의에 대한 의심입니까? 구원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언과 모순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고 말해줍니다. 만일 그가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신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가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가식은 여행에 지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는 너무 피곤해서 누울 수도 없고, 실제로는 서지도 갈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련하고 지친 죄인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무력한 사람처럼 항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칩니다.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주 행하셨듯이) 믿음을 통해 믿음과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는 말에 당황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믿음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며, 믿음이라는 이 위대한 일만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으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행위이자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 다 아니다; 그러나 일을 중단하고 구원을 위해 돈을 지불하려는 시도를 중단합니다. 믿음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의 팔에 안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당신의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잘 수행되었다 해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강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평안은 그러한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지시하시는 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이스라엘이 놋뱀을 본 것 같이 그를 보라. 네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당신의 믿음, 당신의 틀, 당신의 회개, 당신의 기도 -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그분 안에 있고 당신의 가난한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식처를 찾을 것은 그분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영혼의 훈련에서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것은 당신의 독선에 도움이 될 뿐이며, 그것은 당신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전에 당신의 믿음의 질이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일 자체만으로는 당신이 받자마자 위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교적 감정으로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죄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위안이나 위안을 주는 성분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며, 그 효율성은 주로 당신 자신의 믿음의 행위의 뛰어난 탁월성과 그것을 실천하는 당신 자신의 노력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무능력은 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나 무엇이든 행하려는 그러한 모든 독선적인 시도를 중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는 당신이 아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일을 충분히 보지 못하여 당신 자신의 일을 이루려는 비참한 노력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위한 큰

속죄의 모든 충분함을 보여 주시자마자,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행동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당신이 행한 모든 행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취하십시오. 성령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할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행위에서 그를 분리시켜 잃어버린 자의 구주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다. 당신은 기꺼이 불순종하고 불신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유롭고 고의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무능력은 두려울 만큼 사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락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악마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의 아들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입니다! 아, 끔찍한 죄책감이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사악함!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캔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현재의 장벽은 의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당신의 마음이 말한다면 “결국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는 마음이 완악한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나를 돕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신의 반항적인 마음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위해 울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원하되 너희는 원치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Owen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부의 근본
 원인은 의지와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오! 성령의 전능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서 그것을 근절할 수 없는데, 이 불신앙의 힘과
 죄책은 무엇이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한
 교리로 인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교리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무한히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존재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함으로써만 그 교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현재
 행위와 그분의 영원한 사전 마련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주권과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당신의 당혹감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제쳐두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죄인의 진짜 어려움은 주권이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타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리(일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를 제거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성이
 줄어들거나, 더 믿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려움이 닦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교리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죄인은 교리에 대해 심각한 불평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타락이라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단 한 가닥의 방해도 던지지 않은 진리에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타락이 방해가 됩니다. 선택은 그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장애가 모두가 극복되지 않고 일부만이 극복된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하였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 불붙은 모든 낙인을 제거해야 하였습니까? 자신에게만 속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실제 원인이 당신 자신의 지독하게 사악한 마음일지라도 그분의 주권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11. 무감각

11장 - 무감각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1. 당신의 감정에 대한 욕구가 복음을 변화시키나요? 그것은 좋은 소식을 덜 자유롭고, 덜 축복받고, 덜 적합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무가치한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무감각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주신 분의 은혜로운 성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 어울리고, 당신에게 딱 맞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감정 획득은 당신에게 그럴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고, 그것을 더 가까이 가져오지도 않고, 그 축복을 사지도 않고, 당신을 더 환영하게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하시고 싶지 않은 일을 당신을 위해 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2. 당신의 불신에 대한 느낌과 변명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덜 느낄수록 더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을 때까지 당신은 옳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참된 회개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모두 사실이다

느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물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3. 당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가 당신의 감정 부족

때문입니까? 결핍감이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늙은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herd)는 “모든 슬픔과 굴욕과 공포보다는 죽은 마음과 눈먼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더 많은 이끌림을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확신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욱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가 됩니까? 당신은 오기에 덜 적합한 대신에 더 적합합니다. 바르티메오의 눈먼 이유는 그리스도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나아온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멀고 죽은 상태가 더 많다면, 당신이 와야 할 이유는 훨씬 더 많고, 멀리 서 있어야 할 이유는 훨씬 적습니다. 만일 머리 전체가 아프고 마음 전체가 피곤하다면, 당신은 가야 할 필요성에 더욱 굳게 닫혀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입니다. 확신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확신이 없는 당신은 감히 물려서거나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꼭 와야 해요!

4. 당신의 감정 결핍으로 인해 당신이 그리스도께 덜 환영받게 될까요? 이건 어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는 지상에 있을 때 이것이 그의 규칙인 것처럼 말했습니까, 아니면 행동했습니까? 절차/ 수가의 여인은 그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급히 가십시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고 그토록 은혜롭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길르앗의 유향이 네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곳 의사의 애정과 친절이 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다른 질병에 더하여 마비되는 중풍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더 큰 필요는 그분께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줄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로 오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사랑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요, 아무것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지도 말고 멀리 있지도 말라. 5.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정의 결핍이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제거하실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필요성이 당신에게 놓여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많이 느끼는 다른 사람들은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주시려고” 높임을 받으신 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리와 불신을 보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준비하지 말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당신의 불신, 당신의 무감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전인격을 가져와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즉각적인 신뢰와 그리스도에 대한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아들에게 키스하세요”가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거리가 계속되는 실제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당신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기도와 눈물로

당신의 무감각함을 제거하는 영예를 얻으려는 열망입니다. 6. 당신의 무감각은 당신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아닙니까? 마음이 완고한 아이는 가장 미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변명할 수 있지만 완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예요." 너는 마음이 완고한 아이구나! 그러므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오직 정죄하는 법만 배우십시오. 이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순수한 죄책감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죄에 더해진 모든 만연한 죄 중 하나입니다.

그 외 수많은. 이것은 당신을 그리스도에게 달여야 합니다. 불치병인 나병환자인 당신은 그분께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절박한 범죄자로서 당신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끔찍한 죄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시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더욱 무서운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기다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확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바라보라 너희가 불신과 믿지 않음으로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찢든바 나를 보고 애통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신념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신념 자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늙은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만심이 컸습니다. 나는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들 아래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왔지만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같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들을 쫓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죽었다는 느낌과 완고한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가난한 이들, 눈먼 이들, 헐벗은 이들, 비참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단보다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회심에 있어서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영감받은 설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것에도 율법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수천 명의 마음을 찢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였으며,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듣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멸망의 나팔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와 되게 하신 줄 알지어다 이 말이 율법보다 더 두렵고 시내 산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위압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범하였느니라 말할 것 같이 무서운 것이로되 너희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함은 무슨 말이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천 가지 법을 범한 죄보다 더 크도다

완전한 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인의 정죄를 선언한 것은 그의 구원도 선언했습니다. 그 죽음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묶은 못은 살인자들에게 억눌린 신성한 사랑의 흐름을 흘러나오게 합니다! 복음은 완악한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사도적 망치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독선적인 유대인의 완고함을 녹인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죄하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만이 우리 시대에 마음을 녹이고 인간의 반석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율법과 공포는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휘둘렀지만 그 힘은 전파된 십자가의 힘에 비하면 미약합니다. 루터가 오래된 찬송을 사용하여 “오, 그리스도의 복된 십자가여”라고 말한 것처럼 “오, 그리스도의 복된 십자가여” 회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음의 변화”를 뜻하며, 이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율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견해를 바꾸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믿음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참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북쪽으로 얼굴을 돌리려면 남쪽에서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 중 하나를 다른 하나의 준비자로 부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물의 본질상 그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든 믿음의 예비 자격이 아니며, 특히 죄에 대한 슬픔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것은 확정된 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회개는 믿음에 즉각적으로 뒤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튀어나옵니다. 나무의 열매처럼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거나 믿음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먼저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Colquahoun 박사는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믿음은 참된 회개의 수단이며, 이 회개는 그 믿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공포가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는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십자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보는 아합이나 유다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아주 뚜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가 드러내는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입니다. 복음을 믿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확신과 공포와 굴욕을 얻으려는 노력보다 불안한 영혼에게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충분히 염려하지 않고,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기도와 검비와 자기 성찰과 율법을 다루려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덜 유독하고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로마교의 천박함에서 정제되어 복음의 이름으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오는 죄인에게 법적이든 복음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종류의 준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하시는 사람은 단련된 영혼도, 회개하는 신자도, 잘 겸손한 구도자도, 돈을 진지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아담의 아들과 딸 중 더 나은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도다 거짓 회개, 그 결과와

불신과 독선의 표현은 믿음 이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마치 믿기 전에 영혼 안에 온갖 악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 때, 그것은 스스로 회개한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회개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나중에 믿는 영혼에 의해 자아-회개 중 하나로 간주될 것입니다.

의로운 노력, 그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구세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회개와 믿음을 모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죄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수고한 노력으로 충분히 겸손해진 더 나은 부류의 죄인들에게(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 잃어버린 자, 불경건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무감각한 자, 절름발이, 눈 먼 자, 몸이 불편한 자, 불구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Colquhoun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회개자 외에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이 다른 어느 누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의 악은 궁핍한 죄인들이 회개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대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초대받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의무가 없으며 오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도
없습니다.”

12.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끈 동기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 깨어난 죄인의 감정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위협을 느끼거나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 영광의 상속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움직이는 동기 중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러한 두려움과 희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시오, 돌이키시오. 왜 죽으려고 합니까?”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당신의 두려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앞에 영생과 끝없는 왕국의 기쁨을 두실 때, 그분은 당신의 소망에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동기를 제시하실 때 당신이 그 동기에 감동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동기에 따라 행동하려면

틀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들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엄숙한 호소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이 공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틀림없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다른 방법이나 더 높은 동기에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수는 지진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그의

양심 앞에 영원한 재난을 불러일으켰을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묻게 만든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도는 이에 대해 그를 책망했습니까? 그는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즉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을 칠할 때 안도감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드신 분은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본능을 주신 분은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책망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고통을 피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정죄를 피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울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의 경향은 사심이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구실로 모든 진지한 욕망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구원을 구한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순간에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도 당신은 모든 동기 중 가장 높은 동기에 의해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배운 사람은 전혀 죄인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높은 성취이다.

믿음; 그러나 당신은 믿음을 갖기 전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싶어합니다.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격만 확보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 자신의 열심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마음과 비이기적인 동기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나쁜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너희의 모든 악한 동기를 가져다가 너희 죄의 수에 더하여 큰 제사가 있는 제단으로 가져가라. 속죄소로 가십시오. 거기 있는 대제사장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태에 관해 솔직한 진실을 그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동기가 불결함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 모든 악; 너희의 완악함, 너희의 눈멀음, 너희의 무능함. 모든 것을 거침없이 고백하세요. 그분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나, 일하고, 기도하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헛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요.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평안을 누리기 전에 이것을 기다리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만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라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합니까? 당신이나 어떤 죄인에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피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당황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당황하게 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그의 죄를 담당하신 사역으로 만족하는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믿음에 관해 묻지 말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처럼 기뻐하며 길을 가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아는 어떤 형태로든 감소해야 하며, 그리스도는 증가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만족하는 것은 마치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자신에 대한 불만과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만족하고 믿음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완전해도 당신에게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자체에서 벗어나 그분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자체에서 벗어나 그분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전에 죽었었으니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믿음을 믿고, 그 특성을 확인하고,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예수를 신뢰하거나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신의 믿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당신은 어떤 개인적인 주장도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끝없는 형이상학적 탐구를 열어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당신은 당신의 죄성을 느끼는 느끼지 않은 행동합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떤 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행동합니다. 믿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나의 믿음에 만족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궁핍한 죄인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만족합니까?

당신은 "나는 내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 그럴 거라고 예상했나요?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녀들을 향한 기쁨과 안일함입니다.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종류는 다르지만 집에서 순종적이고 사랑이 많은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될 때까지 신자로서 당신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불쌍한 죄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첫 번째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자유로운 사랑은 그를 만족시키고 매혹시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내가 회개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내가 회개한 것에 만족하니 질과 양에 합당하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교만과 독선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으로, 그걸로 무엇을 하겠니? 당신은 그것에 평안을 두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당신의 양심을 진정시키시겠습니까? 피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회개만으로 만족하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종교적 감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매우 높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율법과 복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즉시 믿는 큰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이 모두 바로잡힐 때까지 복음이 당신에게 아무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죄인을 위한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을 데려가 당신의 감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특별한 적합성과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본성의 자존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게 하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추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립니다.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데 더디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믿음, 느낌, 행동 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만족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슬프게 할 뿐인 길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선함으로 인해 결코 당신을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족하시는 것은 단 하나, 곧 그의 독생자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당신 자신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길을 취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용서와 평안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에게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바램은 당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것만 빼고요. 그러나 그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만족하게 된 사람의 입장 외에는 다른 어떤 입장에서든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간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에 정확히 부합합니까? 자신에 대한 만족은 설사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나

당신이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복음이 일종의 수정된 율법일 뿐이며 이를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은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해 보십시오. 너희는 옛 율법이 너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것과 너희를 정죄하기는 하지만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더 쉽게 만들고, 율법의 요구를 낮추고, 복음적인 율법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죄인의 약점에 적합한 용어.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전 법이 너무 엄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율법만을 갖고 계시며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더 온전한 법은 불완전한 법을 의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법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법; 죄를 용인하는 법. 불완전한 율법에 순종하면 완전한 율법을 어긴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한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일점일획”에 성취되는 완전한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은 율법 위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흠 없는 삶을 대리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 율법의 무서운 형벌을 죽기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끝이다(그리스도는 돕는 자가 아니요 구주이시니라. 그분은 완화된 율법을 지켜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화되지 않은 율법을 우리 방에 지키려고 오셨다. 이는 신성한 보증인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죄인에게 율법이 형벌을 요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 다. 둘 중 하나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로 거리를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는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의 약과 의사는 동일하지 않지만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약이시고 성령은 당신의 의사이십니다. 두 작품을 하나의 복합 작품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한 것 위에 평안을 쌓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둘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외부와 내부를 모두 인식하십시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처음과 같이 마지막까지 이 구별을 지켜야 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서 평안을 찾았다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의심을 처음 조용하게 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진정시킵니다. 나는 가서 처음에 받았던 곳에서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우울하게 앉아 내 자신의 믿음이나

불신앙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완성된 사역을 생각합니다. 나는 한때 신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경험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이전처럼 다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안의 회복입니다. 나는 방황하던 중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 중 일부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뒤섞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놀라운 점은 회심은 모든 것이 초자연적(성령의 사역 전체임)이지만 모든 것이 또한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혼에 하늘의 능력과 빛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와 인간의 정신력이 작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하늘에서 천사처럼 우리 영혼에 내려오기를 기대해 왔으며, 당신의 궁창에서 새 별처럼 빛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자연을 초월하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는 교수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신적 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요

우리의 도덕적 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이나 감정의 새로운 기관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무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사로잡으셨을 때처럼 결코 평온하고, 진실하고, 실제적이고,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당신 자신을 느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온 사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 덜 구속되고 덜 제한됩니다.

기계적인, - 모든 능력에 있어서 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였을 때와 같습니다. 주어지는 하늘 생명은 자유와 진리와 평강이니라. 그것은 속박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기계적 제약이 아니라 죄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나라에 대한 해방군처럼 행동합니다. 얼어붙은 나무에 봄의 따뜻한 숨결처럼. 사람의 영혼에 참된 생명, 살아 있는 진리가 들어가려면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또 다른 어려움은 진리의 올바른 순서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못된 진실은 때로는 실제 오류보다 더 해롭습니다. 교리를 선언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술의 가장 간단한 문제를 풀려면 숫자가 올바른 것뿐 아니라 올바른 순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서가 무엇인지가 청자나 독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은 쌍으로, 또는 혼란스러운 묶음으로 그것들을 던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단, 특정 진실만 명확하게 발표된 경우에만 보존됩니다. 이 무모한 혼란으로 인해 불안한 정신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택을 첫째로 두는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선택을 거부하는 복음은 사도적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탁월함은 구원받을 숫자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속죄 그 자체를 선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굳게 붙잡아야 할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말의 형태는 우리에게 복음의 단순한 혼란을 가져오고, 다양한 진리가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모두 거기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이 올바르게 합치면 가장 확실하게 담겨 있는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서 추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를 무력화시킵니다. 로마서의 구절이나 장이 뒤바뀌거나 뒤섞여 있다면, 모든 단어가 그렇더라도 로마서가 되겠습니까?

거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좋은 소식에서 기쁨을 모두 빼내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마치 은혜의 계시가 아니라 율법책인 것처럼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위에 구름을 그려넣고, 마치 거장이 쓴 한 권의 책처럼 읽게 된다. 그래서 그 말에는 거친 어조가 담겨 있고, 복음주의를 모호하게 만드는 법적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로운 약속의 확장으로 읽는 데 더디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사랑의 계시로서; 은혜의 책이라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기록된 것이니라 율법이 그 안에 있지만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시내 산이 더 부드럽고 덜 엄격한 물질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사막 산 가운데 고립된 단단하고 붉은 화강암 덩어리로 머리를 치켜세우듯이, 율법도 성경에 서 있습니다. - 필요한 부분이지만 - 특성은 아닙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씨가 나올 때까지 더하였느니라. 아직 우리의 의심스러운 마음이 이 빛의 책을 어둡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신 일을 선언하는 대신에 행하라는 명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주 읽지 않습니까? 아, 이상해! 우리는 유혹하고 해를 끼치려는 사탄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큰 원수가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사람의 끈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자비로 말씀하실 때 진실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 영예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동정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말을 공허한 것처럼 듣습니다. 마치 그가 말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의 은혜의 메시지가 인간의 귀에 들리는 것 중 가장 철저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단순한 말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죄인을 물리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와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돌아선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동정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한한 오래 참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에 닿지 않으며 신성한 눈물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내민 손은 무시됩니다. 부주의한 자를 체포하고 방랑자를 되찾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 이 슬픈 세상에 쏟으신 신성한 사랑의 양이며, 궁핍한 인간의 아들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 사실인지, 가능한지 거의 의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의 복된 기념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버려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지함은 그 대상인 인간의 미미함에 비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이번 생도 다 그랬을 것이다. ~이었다 거기에는 영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끝없는 기쁨도 없고, 영원한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준비된 것과 같은 영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진지함이 너무 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나 연민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았거나 잃은 것에 대한 기쁨이나 슬픔이 과장될 수 있습니까? 무한한 마음을 갖고 천국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는 불멸의 존재에게 천국의 상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이득에 대해 너무 진지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지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멀리 내다보며 잃어버린 자의 공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가는구나. 그 끔찍한 정죄감과 완화할 수 없는 비애; 날카로운 후회, 너무 늦은 회개, 절망적인 한숨, 지구의 화창한 시간에 대한 쓰라린 기억; 잃어버린 영원의 총합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슬픔과 함께! 그렇다면 그는 너무 많이 동정할 수 있을까? 그는 미친 영혼들에 대해 너무도 다정하게 동경할 수 있는가?

이런 파멸에 몸을 던질 생각이신가요? 그러한 어둠과 악마와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애정 어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과 같은 천국을 보장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너무나 다정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죄인에 대한 연민을 소멸시킨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영원은 비참한 비애의 영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은 죄인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아니, 그의 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증가하는 죄가 수반하는 증가하는 비참함이 모든 육체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애를 더욱 강렬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나아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속의 그 비참한 방랑자에 대한 거짓 없는 동정심과 그의 기근과 벌거벗음과 타락과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그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집니다. 아니요; 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하신 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때는 그들의 배도와 반역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은혜로운 초청은 가버나움과 벳새다와 고라신에게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보낸 가장 사랑스러운 메시지는 일곱 교회 중 가장 악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극도의 죄책과 반역과 불신에 빠져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니요; 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물이 그것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죄인에게서 도망가는 동안 죄인을 추적합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추구합니다. 그를 쫓아다니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동정심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진실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이 흔히 막연한

감정을 말할 때 사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여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작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되고 실제적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감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들을 비현실로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실과 진지함의 말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는 무한히 진실한 존재의 마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은혜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말의 불성실함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주권과 연민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둘 다 믿도록 합시다. 또한 동정의 말에 대해 결코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설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이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몹시 실망할 것입니다. -드디어 발견한 것뿐이야 공허하지 않다면 과장된 표현이다. 오, 하나님을 단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진실하신 분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자. 부주의한 죄인은 그의 진실한 경고를 듣고 떨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염려하는 죄인이 그분의 진실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슬픈 불신이 있고, 그 명백하고 정직한 의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정의를 행합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단순한 진실성조차 의심하는 자신의

성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반역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아들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간절한 동정심을 선언하실 때 불성실하다고 의심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로움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지옥 같은 곳이 있다는 것; 잃어버린 천사나 잃어버린 인간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끔찍할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아무리 끔찍하고 참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맹세하신 큰 맹세, 즉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살리라”고 하신 큰 맹세의 진실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느냐”라는 그분의 은혜로운 간청의 엄숙한 가장자리를 조금도 무디게 하지 않았습니다.